

조선대, 차기 이사회 선출 놓고 갈등 조짐

2월말 2기 임기 종료...구재단 인사 등 배제 주장

이사회 오늘 추천위 구성 논의...교수회 곧 의견 표명

조선대학교가 차기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사회 임원 임기 만료에 맞춰 적임자 선출을 위한 대학 내부 충돌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주도권 싸움이 깊어질 것을 우려한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조선대는 5일 제 84회 이사회를 열고 제 3기 개방이사 3명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 규정대로라면 이미 구성돼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미뤄진 데 따른 임시 이사회다.

이사회는 조선대와 조선이공대, 부속 중·고등학교, 병원·치대병원 등 주요 기관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교직원 임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사회 임원 선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학 내 분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커다는 게 대학 안팎의 시각이다.

조선대 이사회의 경우 여태껏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커녕 구 재단 측, 이사장 측 등으로 성향이 갈리면서 중요 안건마다 의견일치를

보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게 대학 평가다. 이 때문인지 조선대 안팎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로 잇따르고 있다.

당장, 김창훈 조선대 이사(개방이사)는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려 “3기 이사회는 반드시 구 경영진 세력을 배제하고 구성되어야 한다”며 “개방이사 선임부터 원천적으로 씩을 도려내고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아합행위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도 대표인 김병태 조선대 총동장회 부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조선대는 1946년 설립 당시 특정인이 세운 대학이 아니고 7만2000명이 넘는 호남민이 심시일만으로 설립에 동의한 학교”라며 “건학 이념에 따라 제3기

이사회는 공익이사회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수평의회도 조만간 개방이사의 추천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조선대 정관은 개방이사의 경우 ‘이사장은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24조 3)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회 임원들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24조3)고 적시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4
달출몰 12:00
달지름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 생활지수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	0.5~1.0	북	0.5~1.5		보통
	면바다	북서 ~ 동남	0.5~1.5	북서 ~ 동남	1.0~2.0		
남해 남부	앞바다	북	0.5~1.0	북	1.0~2.5		높음중
	면바다(동)	북 ~ 북서	1.0~2.0	북 ~ 북서	1.5~3.0		
	면바다(서)	북 ~ 북서	1.0~1.5	북 ~ 북서	1.5~3.0		

◇물때				모용
	간조	만조	감기	
목포	11:53	06:42		관심
	--:--	19:09		
여수	07:00	01:27		
	20:16	13:5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53	06:42
		--:--	19:09
여수		07:00	01:27
		20:16	13:50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2/11	2/9	5/9	3/7	-2/5	-3/2	-3/3

◇생활지수	
	보통
	보통
	관심

코레일, 설 열차권 10~11일 예매

SRT는 12일

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승차권을 오는 10~11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4일 밝혔다. 10일은 경부·경전·충북·동해선, 11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

다. 이번 예매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좌석이 매진된 열차는 매진 즉시 예약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1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더 많은 국민에 예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장으로 제한된다.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도 12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시작된다. 4일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는 화일에 한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농·수·축산물·가공식품 방사능 안전

354건 검사...검출 안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마트·재래시장 등에 판매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354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 '불검출'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162건, 농산물·가공식품 각 86건, 축산물 20건 등에 대해 요오드(I)-131과 세슘(Cs)-134, 세슘(Cs)-137 등 3개 항목을 검사했다. 수산물 중 수입산 수산물은 43건으로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러시아산 각 14건, 일본산 8건, 노르웨이산 6건, 태국산 1건으로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쪽파 상장 예외 품목 지정을”

전국 생산자연합 개선 촉구

(사)전국 쪽파생산자연합회는 4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파를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농민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농민 등 회원 100여명은 “쪽파처럼 빨리 시드는 채소는 경매를 통해서만 제값 받기 힘들지만 광주 도매시장은 경매제만 고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쪽파를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경우 되래 농민과 소비자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쪽파를 상장 예외의 거래로 시범운영한 후 품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부작용을 큰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무산됐다.

/김형호·사진=김진수기자 jeans@

인사·예산 부적절 처리 수두룩... 전남대, 교육부 감사 75건 적발

수업 절반 무단 결강 교수 징계없이 면직처리

황령협의 직원 8개월 방치 등 무책임 행태 다반사

전남대가 수업의 절반 이상을 무단결강한 교수를 징계하기는 커녕, 면직 처리하는가 하면, 신청 자격이 없는 교수를 ‘연구년’ 교수로 선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남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5건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사·복무 20건 ▲예산·회계 16건 ▲산단·연구비 13건 ▲입사·학사 15건 ▲시설·기자재·학교 안전 11건 등이다.

전남대는 지난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원자(후보자)가 아님에도 공개채용 심사에 지원했다가 이미 탈락했던 후보자를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해 임용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임교원 일반 공개채용 전공심사’(2014학년도) 과정에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실적물을 저술한 학내 교수 4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연구년 신청 자격이 없는 교수를 연구년 교수로 선정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속 단과대학장의 사전 승인 없이 285차례에 걸쳐 공무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된 교원들(173명), 학부생 5명에게 지급된 669만원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연구보조원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아울러 총장 허가 없이 겸직을 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겸직기간으로 출근하는가 하면, 보수까지 받은 교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대는 이외 1억100만원에 달하는 업무상 황령협의로 수사를 받는 직원을 파악하고도 8개월 간 직위해제나 직무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펼쳤다가 교육부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보청기 1+1 무료!!

보조금 (최대 131만원) 맞춤렌탈 구입

특전 배터리 5년동안 무료!! A/S 3년동안 무료!!
(렌탈 표준 가입비 없음)

50% 특별大할인 양쪽으로 잘 듣고 활짝 웃으세요!!

광주 직영점 062)430-8900

순천·여수직점 061)741-4880 전주직점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삼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